

# 남원중학교 장현근 교사

지리산 한 끝자락에 위치한 남원. 춘향으로 너무 잘 알려진 이곳에 누구도 따라 올 수 없을 만큼의 열정으로 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남원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장현근 씨가 그 장본인이다.

“남원에서 생활한 지가 벌써 16년이네요. 교사 생활을 시작한 곳이 이곳이고, 그 이후로 꼭 남원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교사가 되기 전까지 별이란 건 몰랐어요. 사범대 시절, 학교에 천문대도 있고, 관측 행사도 열리곤 했는데, 그때는 그냥 가서 구경하는 정도였지 제가 주체가 돼 뭘 해보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별에는 무관심했던 장현근 씨가 지금처럼 별에 빠져 살게 된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등 떠밀려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

“1993년에 남원 지역 학교에 천체 망원경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천체 망원경을 다룰 줄 아는 선생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천체 망원경이라는 것도 보기 힘든 시절이었으니까요. 망원경은 보급되었고, 이것을 다루고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를 연수시켜야 하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교육청에서 연수를 맡을 사람을 찾았는데, 대학에서

지구과학을 전공했다는 이유 하나로 제가 지목되었던 겁니다.”

얼떨결에 맡아버렸으니 무엇부터 해야할지 감감했다. 참고할만한 책을 찾아봤지만 당시에는 관련 서적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

### 사용설명서 외우기

“큰 도시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곳 서점을 다 뒤졌는데 없더군요. 할 수 없이 망원경과 함께 달려온 사용설명서를 달달 외워서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 교육받았던 선생님들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릅니다. 장교로 군 생활하면서 교관도 했었기 때문에 설명하는 건 잘했거든요. 이후로 제대로 가르치려면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별과 인연을 맺게 된 장현근 씨는 학생들과 함께 천문 동아리를 만들게 된다.

“94년에 학교를 옮기면서 천문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북 최초의 동아리였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기억도 많습니다. 망원경 초점 맞추는 것도 한참 후에나 알았으니까요. 아



어떤 일이든 사람의 뜻과 의지만 있다면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장현근 씨. 덕분에 그에게는 일이 떨어질 날이 없이 바쁜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원공채 입주한 장현근 씨의 훈나무집, 오래 전부터 뜻을 갖고 준비해 온 공동체 생활의 큰 그림의 한 조각이 완성되었다.

무 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아이들과 밤늦도록 관측하고 하면서 저도, 아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선생님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남원 지역에 아마추어 천문의 새싹이 새록새록 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후 장현근 씨의 발걸음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1994년 6월쯤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첫 관측회를 진행했다. 그해 가을에는 조금은 제대로 된 교사 연수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에 남원시 전체 관측 행사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했지만 별을 알아 가면 갈수록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좋은 것을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더군요. 그때부터 일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를 만큼 별이 제 삶의 ‘거의’ 전부가 되 버렸습니다.”

1996년에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남원천문연구회를 만들었다. 이후 전주, 정읍에도 천문연구회가 만들어졌고, 현재의 전북천문교육연합회에 이르게 된다. 그해에는 국내 최초로 남원에서 중소도시 별 축제가 열리기도 했다. 이후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장현근 씨가 가장 큰 애정을 갖고 만들어왔던 것이 가족캠프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별 축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행사가 끝나면 좀 허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행자와 참가자가 1박 2일을 함께 하는 행사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1999년부터 시작한 <별헤는밤 가족캠프>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최소한의 참가비만을 받았습니다. 진행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졌죠. 부모와 자녀가 직접 망원경도 조작해 보고, 텐트 치고 하룻밤을 보내며 가족애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여한 가족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진행자들도 이런 반응에 큰 보람을 느꼈지만 힘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끝날 때면 이번에만 하고 그만 두자라는 말도 나왔지요. 하지만 때가 되면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끊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픡니다. 다시 살려야죠.”

### 모든 과목은 한 길로 통한다

현재는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전북지부 일을 맡아보고 있는 장현근 씨는 올해 천문지도자 자격연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별 관련 일들과 함께 큰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일은 교과 통합이다.

“학교에서는 과학, 역사, 지리, 사회 등 과목을 따로 따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회 현상을 보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갯벌에 가면 갯벌 생물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갯벌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사회적 영향과 경제적 효용성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서로 연관지어 생각하자는 것이 교과 통합입니다. 학생들에게 개별적 사안들을 서로 연결하여 통합적인 사고를 갖게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활동에는 여러 과목의 선생님들이 참여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지만 선생님들도 다른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장현근 씨가 살고 있는 곳은 남원시 외곽의 시골 마을이다. 얼마 전에는 훈나무집을 지어 입주했다. 1990년 교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구상하고 준비해왔던 것이었다. 나누며 사는 공동체 생활에 관심이 많았던 장현근 씨는 몇 년 전에 뜻이 맞는 선생님들과 이 마을로 들어왔다. 처음 마을에 들어왔을 때 반응은 냉담했다.

### 나누며 사는 삶의 필요로움

“잘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생긴 선생님이 이런 시골 마을에 뭐 찾아 먹을 게 있다고 들어오겠어요. 마을 분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처음에는 빈집을 수리해서 살았습니다. 살면서 마을 분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자 하는 마음으로 늘 진심으로 행하고, 봉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 어느 새 마을의 한 가족이 되었죠.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을 많이 도와주세요. 마을 회관을 개축하는데 그곳에 작은 망원경 돔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곳 망원경 운영을 위해서 마을 청년들도 이번 천문지도자 연수를 받았습니다. 16년 전 가졌던 생각들이 이제 조금씩 구체화돼가고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 남은 삶은 이곳에서 이곳 분들과 함께 나누고 봉사하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본업인 교사 생활과, 아마추어 천문 활동, 거기에 최근에는 천문학을 보다 깊이 있게 알고자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몸이 몇 개라도 모자를 만큼 일주일이 빠듯하다. 하지만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은 여전히 많고, 이런 손길을 마다하지 못하는 성격 탓에 그의 일정표는 늘 포화상태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장현근 씨는 처음 별을 보기 시작하면서 가졌던 ‘헌신’, ‘봉사’, ‘열정’의 초심 만큼은 변함없이 지켜나가고 자 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한다.